식품과학과 산업 Vol. 55, No. 2, pp. 218~238 (2022)
https://doi.org/10.23093/FSI.2022.55.2.218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 · 영양 상태

Japanese extortion and the Korean food and nutritional status during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이철호[1]*
Cherl-Ho Lee[1]*

[1]고려대학교
[1]Emeritus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loss of Korean sovereignty by Japan in 1910 was an unforgettable national humiliation of Korea who maintained the sovereignty for 5000 years. The process of Korea annexation into Japan was reviewed and its consequences to the food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s were analyzed by using the records in Korea as well as in overseas. The records of the colonial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hows superficial figures distorting the actual life of Koreans at that time. Japan extorted 45% of rice and 44% of soybeans produced in Korea in 1933, and imported poor quality long-grain rice (Indica type) to replace partly the extorted rice. The food and nutritional situation of Koreans was miserable, and hunger and malnutrition were prevalent in the country for the 36 years. The height of Koreans became smaller than Japanese, who was called as 'little people (Oein)' in Korea historically.

Keywords: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Korean food habit, Food availability, Introduction of Western food into Korea,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서 론

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합병된 것은 한민족 5천 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서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왕실의 무능과 무지, 관료들의 정쟁과 부정 · 부패가 나라를 병들게 했으며 국민은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다(이철호, 2022). 서구열강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Corresponding author: Cherl-Ho Lee,
Gwangneungsumogwon-ro 779beon-gil3, Soheul-eup, Pocheon-si, Gyeonggi-do, 11187, Korea
Fax: 82-2-927-5201
E-mail: chlee@korea.ac.kr
Received April 26, 2022; revised May 11, 2022; accepted May 16, 2022

으로 넘쳐나는 상품을 처리할 시장이 필요했고, 신식 무기와 항해술로 동아시아 식민지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외교적 역량을 앞세워 한국과 중국을 공략하고, 말기적 중병으로 허덕이던 조선을 접수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였다. 주권을 잃은 한국민은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민족적 분개와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에 관한 영어로 된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유포하면서 한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한국민은 게으르고, 더럽고, 미개하여 그들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일본이 이를 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im Jimin, 2011). 당시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도 상당부분 이러한 논조에 동조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피스(Willian E. Griffis)나 오페르트(Ernst Oppert)의 기행문도 한국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했다(이철호, 2022).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식민지 경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치밀히 선별되고 조작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1944년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술된 앤드류 그라얀제프(Andrew J. Grajdanzev)의 '모던 코리아(Modern Korea)'의 서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세상에 한국처럼 많은 인구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에 대해 서양 문헌에서 이처럼 관심 없는 경우는 희귀한 일이다. 1919–21년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 일에 대해 한두 권의 책이 출판되긴 했으나 곧 관심에서 멀어졌고, 1921년 이후에 발간된 책들은 일본정부가 펴냈거나 그걸 인용한 책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잠깐 둘러본 사람들의 기행문 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영어로 발간한 책들은 특수한 목적이 있다. 그들이 기술한 내용이 대부분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치밀히 선택되고 해석이 편향된 것들이다. 한국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실상을 외국에 알릴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는 일본학자는 일본정부와 국수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외국의 학자들은 선교사 외에는 입국이 불가능했고, 선교사들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2천4백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이 나라는 한때 인류문명을 선도했던 오래되고 빛나는(brilliant)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Grajdanzev, 1944)

일본의 국권 피탈과정

러 · 일전쟁은 제국주의의 선두주자 격인 영 · 미 · 불 · 독 등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고, 그것은 세계 제1차 대전 나아가 제2차 대전으로 가는 길목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점이다(이남택 등, 2005) 러 · 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러시아제국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승인한다.
- 러시아제국은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 승인 및 장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할양한다.
- 일본제국이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 섬을 할양한다.
- 러시아제국은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제국에 양도한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묵인했고,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대한제국은 을사조약(1905)을 거쳐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단한 친일 인사였다. 그는 1914년에 발표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몫을 취하라(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라는 제목의 책에서 일본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일본과의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총독부 테라우치 총독이 쓴 '조선의 개혁과 발전(1912-1913)'이라는 보고서를 극찬하며, 서구 열강들이 배워야 할 식민지정책의 표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상충할 일이 없으므로 서로 믿고 협력하자고 호소했다(Roosevelt, 1916). 식민지시대에 앞장서서, 불과 27년 후에 진주만에 폭격을 맞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졌던 그릇되고 근시안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국 정부를 협박해 군사요지를 선점했고(한일의정서), 승리가 굳어진 뒤에는 한국 조정에 재정 · 외교 고문을 배치했으며(제1차 한일협약), 전쟁이 종결된 뒤에는 통감을 배치하고(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다. 이에 따라 영 · 미 · 불 · 독 · 러 등 각국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외교업무를 중단하고 철수했으며, 한국에 관한 외교 사무는 동경에 있는 외교대표를 통하여 집행하게 되었다. 사실상 대한제국의 합병과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표 1).

표 1.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러일전쟁, 1904년 2월 8일- 인천항에서 일본 어뢰정이 러시아 전함 기습, 포츠머스조약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
- 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시위대 · 진위대 감축
- 화폐정리사업, 1905년~1909년- 조선 상업자본의 몰락, 화폐경제의 붕괴, 일본 화폐에 예속
-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통감 정치
- 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고종 강제 퇴위, 순종 즉위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24일- 차관 정치
- 대한제국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시위대 ·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 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일본제국에 사법권 · 교도 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모든 의병 소탕, 항일 의병 만주 이동
- 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일본제국에 경찰권 위탁
- 한일 병합 조약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국민은 경악했으며 육군부장 민영환, 의정 조병세 등 수많은 관리와 지사들이 의분강개하여 자결했다. 심지어 청국인 반종례와 일본인 니시자카도 동양평화를 깬 일본을 지탄하며 투신자살하였다(이남택 등, 2005) 수천 년간 동양 삼국이 지켜온 평화공존의 전통을 짓밟은 만행이었다. 1909년 안중근은 조선통감부의 통감을 지낸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포살했으며, 정명운과 장인환은 한국의 외교고문으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다. 합방에 가담한 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내각 인사들을 처단하기 위한 의열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한일 합병 조약은 반만년 이래 처음으로 국권을 다른 민족이 강탈해간 민족사상 최대의 수난이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과 3.1 운동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항한 한국 국민의 저항은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일어났다. 의병 전쟁은 유생과 농민이 참여한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이었으며, 해산군인을 비롯한 민중세력이 의병에 대거 참여하였다. 연합부대를 조직하여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할 정도로 그 규모나 조직이 성장하였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근대무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권 피탈을 전후한 시기에 만주나 노령 등지로 활동무대를 옮겨 독립군으로 전환하여 무장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교육과 식산의 개발을 내세운 개화지식인 주도의 실력양성문화였다. 실력양성을 내세운 계몽운동은 러일전쟁 이후 교육구국운동이 중심이었는데, 한 군에 20개가 넘는 사립학교들이 설립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 정치 · 사회단체가 결성되고 언론 · 출판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어문과 역사연구, 민족종교활동, 신문화 보급 등 구한말 암흑기에 잠자고 있던 민족의식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제국주의의 본연의 경제수탈과 한국지배의 특징인 민족말살정책을 지배의 기조로 삼았다. 일본 본국의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 언어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식민지인 한국에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무리한 민

족동화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1919년 3·1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 각처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의 광경을 묘사한 외국인들의 글 중에 엘리자베스 카이스(Elizabeth Keith)의 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Kaith, 1947).

"나와 내 여동생은 한국에서 그 비극적인 사건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한국에 도착했다. 수천 명의 한국애국자들, 심지어 어린 학생까지 감옥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단지 한국 국기를 흔들며 '만세!' (Long Live Korea) 라고 외치며 행진한 것뿐이었다. 우리는 여러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침착한 얼굴 표정에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한 여성을 그렸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투지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속임수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의 황후가 사살되었으며, 그들의 전통의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말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나는 남자들이 입은 흰색 한복에 잉크가 뿌려진 것을 여러 번 봤다.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경찰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 없는 보통 일본인은 한국인을 멸시하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존경하고 숭배하기까지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오랜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Kaith, 1947)

한국의 일본 합병은 당시 동아시아를 연구하던 서양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1926년에 출간된 알레인 아일랜드(Alleyne Ireland)의 '새로운 한국(The New Korea)'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20여 년 전 극동의 식민지경영에 대한 책을 3부작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이 지배한 버마,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북보르네오, 홍콩, 그리고 미국령의 필리핀, 네덜란드가 지배한 자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에 관한 것이었다. . . 1922년 극동에 와서 1년여 지내면서 일본의 한국 경영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대만에 대해 쓰는 것보다 더 흥미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 이유는 대만의 경우는 식민지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문명화된 인종이 저개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명화된 민족이 다른 문화민족을 지배하는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당시 한반도의 생활상은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민족이 본질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거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조선왕국의 어리석음과 부패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Ireland, 1926)

일제 강점기의 사회상

일제는 합방 초기 한국민족의 끈질긴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수립하여 무단정치를 강행했다. 1920년대에는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으나, 그 본질은 민족분열정책이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여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면서 한국사를 왜곡하는 일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열등의식, 패배감, 좌절감 등을 조장하고 친일세력을 육성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1931년 7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이어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도발했으며,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국에서 수탈해 갔다.

거주자 분포와 농업 경영형태

1935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한국 내 거주자 분포에 대한 자료는 표 2와 같다. 1910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인의 숫자는 1,312만 명에서 2,051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일본인은 17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타 외국인은 1만 2,000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증가했다(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표 2. 한국내 거주자 분포 변화 추이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 계
1910	가구수	2,749,956	50,992	3,155	2,804,103
	인구수	13,128,780	171,543	12,694	13,313,017
1920	가구수	3,191,153	94,514	7,312	3,292,979
	인구수	16,916,078	347,850	25,061	17,288,989
1930	가구수	3,679,463	126,312	15,789	3,821,564
	인구수	19,685,587	501,867	69,109	20,526,563
1933년 말	가구수	3,805,684	135,707	10,658	3,952,049
	인구수	20,205,591	543,104	42,626	20,791,321
1934	가구수	3,857,169	141,417	12,020	4,010,606
	인구수	20,513,804	561,384	50,639	21,125,827

표 3. 1926년 한국의 직업별 인구 구성(Ireland, 1926)

직 업	한국인	일본인	기타외국인	합 계
농림업	14,738,126	38,573	5,346	14,782,045
어업, 제염업	213,266	10,775	25	224,066
공업	358,205	63,999	3,517	425,721
상업, 운수업	984,405	126,893	16,080	1,127,378
공무원, 전문직	325,733	117,080	1,576	444,389
기타	410,561	20,642	4,737	435,940
기록부재	177,943	8,531	848	187,222
합 계	**17,208,139**	**386,493**	**32,129**	**17,626,761**

아일랜드(A. Ireland)는 나름대로 실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했으나 그 시대 한국자료의 부족으로 주로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합병 당시 1910년의 한국 인구수는 1,331만 명이었으나 1923년에는 1,7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구성을 보면 표 3과 같다. 1897년 1만 명 수준이던 일본인이 합방 당시 1910년에 17만 명, 합방 16년 만에 38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인 85%가 농림업에 종사했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은 87%에 달했다. 한국인의 남녀 비율은 남자 100명당 여자 94명이었다(Ireland, 1926).

표 4는 1920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일어난 직업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Grajdanzev, 1944). 농림업 종사자는 전체인구의 85.6%에서 68.3% 줄었다. 당시 미국의 21.4%나 일본의 47.7%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라얀제프는 표 4를 제시하면서도 그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미화하고 성과를 과장하려는 의도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민이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여 신고를 거부한 토지는 물론,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유지를 모두 국유화했다. 이렇게 해서 일제는 1919년 2월 현재 102만여 정보의 미간지를 포함한 총 137만여 정보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일제는 이 토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흥업주식회사 등 식민농업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불하하여 소작제로 경영케 함으로써 식민지 농업 수탈을 감행했다. 또한 기

표 4. 직업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20 – 1939)(Grajdanzev, 1944)

	한국				일본	미국
	1920	1929	1938	1939	1930	1930
농업	85.6	81.9	73.6	68.3	47.7	21.4
어업	1.2	1.6	1.5	1.6	1.9	0.5[a]
광업	–	–	1.2	1.8	0.9	2.0
제조업	2.2	2.6	3.1	3.5	19.2	28.9
무역	–	–	7.0	7.9	15.1	12.5
통신	6.2	7.2	1.0	1.3	3.7	7.9
공무직	2.2	3.4	3.9	4.8	6.9	8.5
기타 직업	1.7	1.8	6.9	8.3	2.0	8.2[b]
가사일	1.7	–	–	–	2.6	10.1
직업이 없거나 기록이 없음	1.9	1.5	1.8	2.5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어업+임업, b: 사무직

존 봉건지주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강화하여 친일파를 만들고, 농민 대중은 국유지에 형성된 사적 소유권과 소작지에 발생한 도지권(賭地權), 미간지를 개간하여 소유할 수 있던 개간권을 박탈하여 자영농민으로의 성장을 봉쇄했다. 따라서 한국 농민은 완전 무권리 상태의 소작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1924년 한국의 농가 호수는 2,702,838호이며 완전 소작농의 수는 전체의 42%, 부분 소작농은 35%로 전체 농가의 77%가 땅 주인에게서 농지를 빌려 농사짓고 있었다(표 5).

일본 조선총독부는 지주들의 농지규모에 대한 통계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라얀제프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표 6과 같은 추정치를 발표하였다(Grajdanzev, 1944). 수적으로 3% 미만인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표 5. 1924년 한국의 농업 경영 형태 (Ireland, 1926)

	농가호수	백분율
자경농	627,896	23%
자경+소작	951,667	35%
완전 소작농	1,123,275	42%
합 계	**2,702,838**	**100%**

표 6. 농업 경영형태에 따른 농지 규모 추정(Grajdanzev, 1944)

경영 형태	농가수	소유면적 (1,000 acres)	전체에 대한 비율(%)	
			농가수	면적
지주	83,000	7,198	2.7	63.9
자작농	502,320	2,888	16.3	25.7
부분소작(자작+소작)	729,320	1,174	23.6	10.4
순수소작농	1,583,435	0	51.3	0
화전민	71,187	0	2.3	0
노동자(일용직)	116,020	0	3.8	0
Total	**3,085,282**	**11,260**	**100.0**	**100.0**

들은 주로 총독부에서 탈취한 국유 농지를 불하받은 일본인과 일부 양반계층)이 전체 농지의 6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민의 16.3%를 차지하는 자작농이 전체농지의 25.7%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자기 땅이 모자라 일부 소작을 붙이는 농민이 23%인데 전체 농지의 10.4%를 경작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생활도 여유롭지는 못하였다. 전체농민의 57.4%를 차지하는 소작농, 화전민, 노동자들은 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극빈자들이다.

표 7. 농업 경영 형태별 쌀 생산량과 농가당 가용한 쌀의 양 (Grajdanzev, 1944)

경영 형태	쌀 생산량(톤)	1인당 쌀 가용량(kg)
지주	901,554	1588.8
자작농	358,342	137.6
부분소작 (자작+소작)	679,988	168.2
순수소작농	478,160	57.0
합 계	**2,418,044**	**261.3(평균)**

(주) 부분소작농(자작+소작)과 소작농의 실제 쌀가용량은 더 적을 수 있음. 본 계산에서는 소작료 이외의 도지쌀 량은 계산되지 않았음.

표 8. 1912년과 1923년의 농작물 경지면적 비교(단위: 헥타르) (Ireland, 1926)

	1912년	1923년
벼	1,417,174	1,550,399
보리	622,392	813,145
밀	267,422	356,269
나맥	45,359	55,178
콩	841,349	1,525,860
수수, 옥수수	634,954	874,517
귀리	58,817*	117,312
기장	92,531	114,912
좁쌀	114,114	114,692
면화	64,565	158,879
삼(대마)	21,406	30,743
참깨	12,726	22,943
채소	87,238	199,035
비료작물	1,682*	31,316
닥나무	-	4,992
골풀	1,909	3,227
합 계	**4,349,571**	**6,076,099**
총 경지면적	**2,464,904**	**4,320,864**

* 1913년 데이터
(주) 원본의 단위환산: 1cho(町,정)=10단보(段步)= 3,000평, 9917.4m^2 = 약1 Hectare

표 7은 농업 경영 형태별 쌀 생산량과 농가당 가용한 쌀의 양을 추정한 자료이다(Grajdanzev, 1944). 대지주들의 농가당 1년간 쌀 가용량은 1,588 kg, 자작농은 137 kg, 부분소작농은 168 kg, 순수소작농은 57 kg에 불과하다. 소작농은 80 kg들이 쌀 1섬도 안 되는 양으로 1년을 살아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식량생산과 교역

표 8은 1912년과 1923년의 농작물 경지면적을 비교한 것이다(Ireland, 1926). 벼는 전체 경지면적의 58%(1912)–36%(1923)를 차지하는 절대 주곡이며, 콩은 34%(1912)–35%(1923)를 차지하는 제2 주곡이다. 이모작을 하는 땅이 많으므로 실제 경작면적은 총 경지면적보다 76%(1912)–41%(1923) 높게 집계되었다.

수산물 통계를 보면 1912년 전국 어획고는 4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923년에는 2,6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신선 어류의 수출액은 1923년 450만 달러였는데 90%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1923년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액은 1,450만 달러였으며, 수출액은 7백만 달러였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1923년 어획된 어류의 생산액 크기에 따른 어종을 보면 고등어, 정어리, 멸치, 명태, 연어, 청어, 도미, 대구, 가자미 등이다.

농업 생산 통계

표 9는 1935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1933년도 농산업 생산 통계이다.(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일본식 도량형 단위와 엔화를 메트릭 단위와 달러로 환산하였다. 이들 통계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로 발표한 자료인데, 자료의 정당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참고한 것이다.

표 9. 1933년 한국 농산업 생산 통계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생산량 단위: 별도단위 없을 시 M/T)

품 목	생산량(M/T)	생산액($)
쌀	2,528,788	170,759,000
콩	633,217	22,000,730
밀, 보리	1,441,533	38,027,927
기장(수수, 좁쌀)	715,197	20,157,270
밀가루	-	4,050,925
설탕	32,688	3,270,554
사과	44,613	2,324,645
배	13,039	938,713
포도	2,449	323,875
복숭아	4,129	194,772
감	22,485	713,318
밤	9,474	581,671
버섯	57	78,984
인삼(백삼)	86	671,240
홍삼	29	-
기타 한약재	2,144	171,760
소 (두)	1,663,136	-
꿀 (kg)	968,005	381,157
어류(생선)	1,007,258	25,689,079
어류(건조, 염장)	8,015	1,007,942
통조림 (상자)	147,576	716,011
소금	201,925	-
김 (장)	41,663만	1,249,870
미역	5,035	638,241
어류비료	76,765,670	2,393,019
대마(삼)	19,785	2,725,282
가마니 (개)	53,844,735	2,885,272
돗자리(거적) (개)	5,320,549	1,045,365
새끼	-	2,131,471
담뱃잎	16,552	2,431,180
담배	-	17,613,519
솜	95,650	9,933,514
누에고치	90,853	10,932,345
비단	1,596	7,965,878
숯	13,256	1,104,015

(주) 원본의 단위환산: 1 koku(斛,곡)= 5.12Bushel= 139kg(곡물 1Bushel=27.2kg). 1관=3,75kg, 1근= 0.6kg, 1yen= 0.5USD 당시환율

1933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252만 톤, 콩은 63만 톤, 밀과 보리는 144만 톤이었다. 기장(수수, 좁쌀)의 생산량도 72만 톤으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설탕은 이때 이미 제당 공장이 있어 원당을 수입하여 설탕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표 7에 설탕 수입액이 292만 달러인 것은 원당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인삼과 홍삼의 생산량은 115톤으로 이때 이미 인삼재배가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은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대표적인 한국의 영약으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애호하는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인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서양인들의 견문록에서 소개되고 있다(Bergman, 1938).

표 10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곡물과 콩 생산량의 변화이다(Grajdanzev, 1944). 1910년 144.6만 톤이던 쌀 생산량이 1938년에는 335.5만 톤으로 증가했다. 콩은 같은 기간 50.5만 톤에서 66.4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곡물생산량이 1910년에서 1920년까지 10년 동안 48.7% 증가하고, 1920년부터 1935년까지 1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다시 1936년에서 '37년까지 1년 동안에 34% 증가한 것은 설명되기 어렵다. 그라얀제프는 이런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통계자료가 조작된 부분이 많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Grajdanzev, 1944).

그림 1은 한반도의 쌀, 밀, 보리, 콩의 주산지 분포를 표시한 지도이다. 북한의 동북지역은 산악지대이므로 쌀과 밀의 재배가 어려우나 보리는 동북지역, 콩은 동서해안지역과 남한 전역에서 재배 된다. 쌀은 호남지역에, 보리는 호남과 경남이 주산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주요 곡물의 재배 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다(Grajdanzev, 1944). (n)은 북방한계선, (s)는 남방한계선이다. 지구온난화로 오늘날의 재배한계선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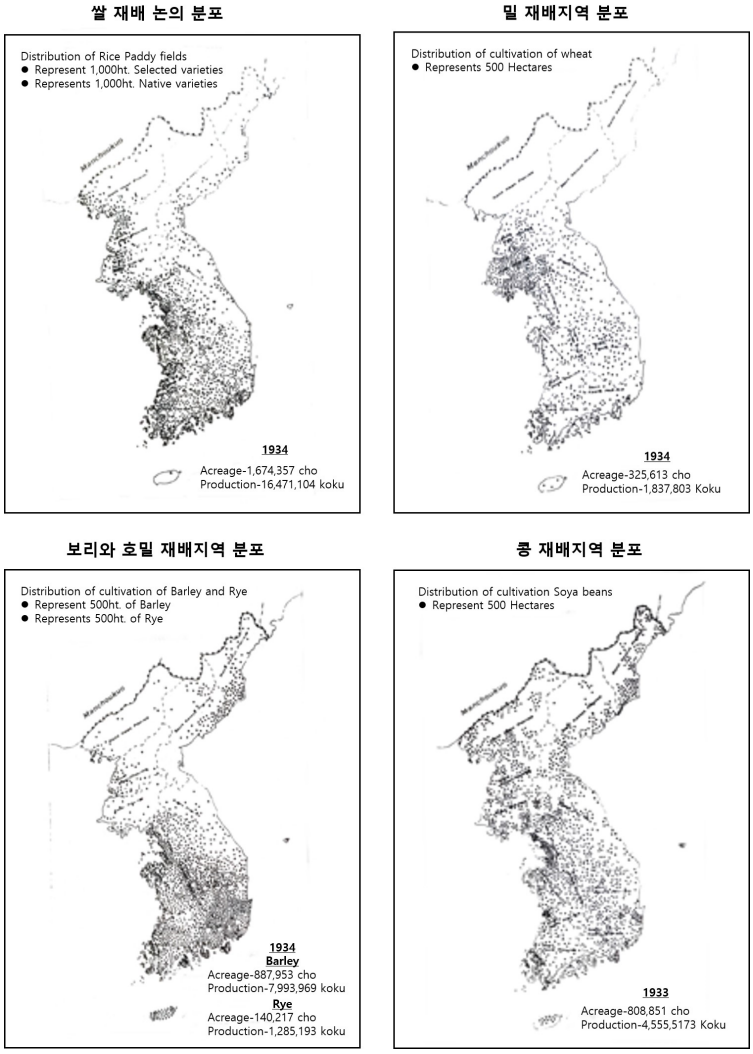
한국의 축산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특히 소는 농업 노동력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식용보다는 농업용으로 가치가 크다. 표 11은 일제 강점기의 가축 마리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자료이다. 여기에

표 10. 주요 곡물과 콩 생산량의 변화(1910년– 1939년)

(단위 1,000톤) (Grajdanzev, 1944)

	1910	1912–21(평균)	1934–36(평균)	1937	1938	1939
쌀	1,446	1,942	2,503	3,725	3,355	1,995
보리, 밀, 귀리	863	1,360	1,568	2,041	1,705	–
기타 곡물	736	1,231	1,020	1,271	1,056	–
콩	505	747	708	752	684	–
합 계	**3,551**	**5,279**	**5,798**	**7,789**	**6,799**	–
전년도 대비 증감(%)	–	**48.7**	**9.8**	**34.3**	**−12.7**	

(주) 원본의 단위환산: 1 koku(斛,곡)= 5.12Bushel= 139kg(곡물 1Bushel=27.2kg)



(1 cho ≒ 1 hectare, 1 koku = 0.139 ton)
그림 1. 한반도의 쌀, 밀, 보리, 콩의 주산지 분포 지도(1934).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그림 2. 주요 곡물의 재배 한계선(Grajdanzev, 1944).
(n)은 북방한계선, (s)는 남방한계선

표 11. 일제 강점기의 가축 마리수의 변화(1919–1938)

(단위: 1,000마리) (Grajdanzev, 1944)

	1919	1929	1938
소	1,462	1,586	1,717
말	53.2	55.8	51.6b
당나귀	13a	7	3
양	0	2	27
염소	114a	22	44
돼지	963	1,327	1,507
가금류	4,998	6,185	7,165

a. 1915 b. 1936

서도 그라얀제프는 통계수치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의 경우 농가당 평균 마리수가 1919년 0.55에서 1938년 0.56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146만 두에서 171만 두로 증가한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돼지는 같은 기간 96만두에서 150만 두로, 가금류는 499만 마리에서 716만 마리로 증가했다. 돼지의 농가당 마리수는 1919년의 0.36에서 1938년 0.49두로, 가금류의 농가당 마리수는 같은 기간 1.92에서 2.35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Grajdanzev, 1944).

표 12. 1933년도 한국 주요 수출입 통계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35)

수입품목	수입액(1000$)	수출품목	수출액(1000$)
쌀	919	쌀	77,353
기장	6,393	콩	9,637
콩	1,368	어류 (생선, 건조, 염장)	6,079
밀가루	1,994	김	1,726
담배	204	누에고치	887
개솔린	2,732	비단	7,004
등유	1,507	흑연	523
성냥	746	석탄	2,301
면화직물	4,791	금괴	941
목화실	3,400	철강석	953
명주실	4,706	설탕	1,268
면직물	21,901	소가죽	713
중국대마	573	어유	588
모직물	4,264	충진솜	3,250
설탕	2,925	구리	2,866
일본술(사케)	559	철	4,378
맥주	1,055	소	2,130
소금	1,384	종이	2,031
비단	9,222	목재	2,878
고무신	453	비료	11,303
종이	4,307		
석탄	5,367		
시멘트	1,674		
토기	1,456		
철	10,238		
기계	6,260		
목재	3,067		
비료	5,726		

주) 원본 단위 환산: 1 yen= 50 cents U.S. 당시환율

표 13. 가축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 비교(1929–1939)(단위 1,000USD)(Grajdanzev, 1944)

		1929	1936	1937	1938	1939
A.	주요 농산물 수출액	88,545	142,601	136,078	180,348	114,125
B.	총 수출액	171,372	295,629	339,921	438,697	501,727
	A / B (%)	51.6	48.3	40.1	41.2	22.7
C.	주요 농산물 수입액	27,019	34,628	29,077	23,317	48,861
D.	총 수입액	210,965	380,162	429,664	526,458	691,962
	C / D (%)	12.8	8.9	6.5	3.9	6.6
	C / A (%)	30.5	24.3	21.4	12.1	42.8

(주) 주요 농산물: 가축(living animals), 곡물, 밀가루, 콩

주요 산물 수출입 통계

표 12는 1933년도 한국의 수출입 통계이다(조선총독부, 1935). 쌀의 수출액이 7,735만 달러로 표 9의 쌀 총 생산액 17,076만 달러의 45%에 달한다. 콩의 수출액은 963만 달러로 총생산액 2,200만 달러의 44%에 달한다. 한국인은 굶주리는데 생산된 쌀과 콩의 거의 반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다. 수입쌀은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된 값싼 장립종(Indica type)으로 맛이 없어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것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우리쌀은 공출되고 수입쌀을 먹어야만 했다. 전체 수출액 중 7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수입액 역시 63%(1911), 88.6%(1939)가 일본과의 교역으로 이루어 졌다(Grajdanzev, 1944).

표 13은 가축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것이다(Grajdanzev, 1944). 1929년 이들 농산물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51.6%를 차지했으며 1938년에는 41.2%를 차지했다. 1939년은 극심한 흉년을 겪은 해로 농산물 수출액 비율이 22.7%로 극감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2.8%에서 3.9%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1939년 흉년에는 6.6%로 상승했다. 농산물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30.5%(1929)에서 12.1%(1938)로 낮아졌다.

일제의 양곡 수탈 정책

일제의 미곡 수탈정책은 산미증산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산미증산계획은 1918년 8월 동경에서 발생한 '쌀소동'을 겪으며 일제의 식량 · 미가 안정을 위하여 한국에서 쌀을 공급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한국을 식량 공급기지로 확정하는 식민지 정책이었다. 산미증산계획은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토지개량사업과 품종개량 및 비료사용 증가에 의한 농사개량사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토지개량을 위한 장기 저리자금의 융통과 수리조합의 설립 등이 대지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다수 한국 농민들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했다. 표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토지개량사업으로 땅 부자가 된 일본인 지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자작농이나 소작농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부분소작농과 순수소작농의 수가 전체의 80%가 되었으며, 특히 자작농들이 순수 소작농으로 떨어져 1918년의 37.7%에서 1932년 53.8%로 급증했다(Grajdanzev, 1944). 한국농민의 소작농화, 노예화를 유도한 것이다.

농사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인 입맛에 맞는

표 14. 농업인의 계층별 분포 변화(1918–1932)(Grajdanzev, 1944)

	1918	1928	1932
비농업 지주	0.6	0.7	1.2
농업 지주	2.5	3.1	2.5
자작농	19.7	18.5	16.6
부분소작농 (자작+소작)	39.5	32.3	25.9
순수소작농	37.7	45.4	53.8
합 계	**100.0**	**100.0**	**100.0**

소위 '우량품종' 보급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 역시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일제는 합방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신품종에 대한 학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식물의 학명에 이를 최초로 발견한 일본인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의 식물에 최초 발견한 서양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을 그대로 흉내 낸 것이다.

일본의 1911–'12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1,451종의 벼 품종을 한반도에서 수집했는데 그중 멥쌀이 876종, 찹쌀이 383종, 밭벼가 192종이었다(이철호, 권태완, 2003). 이들 벼 품종은 일본쌀 육종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 같은 산미증산계획은 사업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식량수탈을 강행했다. 한국의 미곡 평균생산량이 1920/22년 1,472만 석에서 1930/32년 1,713만 석으로 16%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의 미곡 반출량은 같은 기간 295만 석에서 725만 석으로 2.5배 증가했다(이남택 등, 2005). 이 수치는 표 12의 자료에서 산출한 1933년도 쌀 공출률 45%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식량 · 영양 상태

식량 공급량 변화

이 시대는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보양섭생 개념에 서구식 영양이론이 도입된 시기이다. 이 시대의 식량자원에 대한 자료는 김호직의《조선식물개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호직, 1944). 곡식류는 임원십육지의 36종에서 17종으로 많이 줄었으며, 나머지는 산야초류에 포함 시켜 구황식물 범주에 넣고 있다. 곡물과 함께 소채류(25종), 산야초류(304종), 해조류(7종), 버섯류(81종), 과실류(11종)의 식물성 식품과 204종에 달하는 어패류 및 어란류가 중요한 식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반면 수육류 및 난류는 소, 돼지, 개, 노루, 닭, 꿩 및 계란만을 적고 있으며 특히 우유류는 이때까지도 우리의 식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이철호 등, 198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2–1940)에 수록된 식품재료의 목록을 보면 곡류 15종, 두류 6종, 서류 2종, 채소류 13종, 과실류 5종, 가축류 3종 및 다수의 수산물 종류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 정부 통계에 기록되는 식품재료의 수는 실제 이용되는 종류보다 훨씬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쌀 소비량을 추산한 그라얀제프(Grajdanzev, 1944)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1인당 연간소비량(kg)과 1일 소비량(g)을 계산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합방 초기의 1인당 쌀 소비량 260 g에서 점차 감소하여 1934–'38년에는 148 g으로 감소했다.

표 16은 쌀, 기장, 보리, 콩 등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을 추산한 표이다. 합방 초기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기장(좁쌀, 수수)의 소비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보리, 콩, 기타 곡물의 소비량은 쌀과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양의 쌀과 곡물을 한반도에서 수탈해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근거로 하여 연도별 1일 1인당 주요 식품 공급량을 3년 평균치로 추산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이철호 등, 1988). 곡물 전체 소비량은 1913/15년 454 g에서 1930/32년 372 g으로 18% 감소했으며, 쌀은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설탕류, 견과류,

표 15. 일제 강점기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추이 (Grajdanzev, 1944)

평 균	연간 소비량(kg)	1일 소비량(g)
1915–1919	95.15	260
1920–1924	86.77	238
1925–1929	69.63	191
1930–1933	61.06	167
1934–1938	53.86	148

표 16. 한국인 1인당 연간 곡물 및 콩 소비량 변화 추이(단위 kg) (Grajdanzev, 1944)

평균	1915–1919	1930–1933
쌀	95.15	61.06
기장	41.21	44.20
보리	58.48	55.90
콩	25.84	19.31
기타	54.67	46.65

표 17. 일제 강점기의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일 1인당 공급량(이철호 외, 1988)

(단위 : g)

년도	1913–15	1922–24	1930–32	1937–39
곡류	454.2	414.4	372.0	436.5
쌀	248.9	196.1	162.4	222.0
밀가루	29.5	31.3	26.0	37.4
보리	65.7	61.5	65.0	75.0
기타	110.1	125.5	118.6	102.1
설탕류	–	–	–	–
서류	36.4	70.3	70.5	90.1
두류	94.6	76.8	65.7	52.0
견과류	–	–	–	–
종실류	–	–	–	–
채소류	95.3	102.7	134.7	127.4
과실루	0.6	2.6	8.3	12.6
육류	13.4	15.7	14.2	11.8
계란류	–	–	–	–
우유류	–	–	–	–
수산물	26.3	37.6	73.5	84.0
유지류	–	–	–	–

표 18. 일제 강점기(1910~1945)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이철호 등, 1988)

년도	1913–15	1922–24	1930–32	1937–39
총에너지(kcal)	2,089	1,916	1,775	1,980
식물성(kcal)	2,083	1,849	1,676	1,874
단백질(g)	80.7	72.7	71.7	73.6
동물성(g)	6.6	8.9	14.3	15.6
지방(g)	24.3	20.4	19.5	18.5
Ca(mg)	314	310	325	311
Fe(mg)	23.5	21.4	20.8	22.7
비타민A(IU)	414	591	985	1076
B1(mg)	1.66	1.63	1.58	1.59
B2(mg)	0.74	0.72	0.78	0.80
Niacin(mg)	15.6	15.1	15.3	16.0
C(mg)	42	51	60	61

종실류, 계란류, 우유류, 유지류는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식품이었다.

합병 초기에 비하여 1930년대로 가면서 식량공급량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로부터 영양공급량을 추산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이철호 등, 1988)

1913–1915년의 1인당 1일 총 에너지 공급량은 2,089 kcal이며 이 중 식물성 재료가 97.5%를 차지하고 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은 80.7 g이며 이 중 식물성 단백질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습관이 거의 채식에 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너지의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 에너지 74.1%, 단백질 에너지 15.4%, 지방에너지 10.5%로서 김호직의 기본 식단 구성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식품공급의 절대량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그 구성비는 1940년대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

전통 표준식단의 영양 평가와 식사목표

고문헌에 나오는 첩반상에 관한 기록은 반상을 구성하는 음식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양적 개념이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 1944년 김호직 교수가 쓴 《조선식물개론》에 7첩반상의 구성과 재료의 분량이 제시되어 있다. 표 19는 김호직의 7첩반상 구성 예에 근거하여 한국 전통 표준식단의 영양학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이철호, 류시생, 1988). 밥, 국, 김치로 구성된 기본 식단은 한국인 성인 남자의 1일 영양권장량(RDA)의 4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48.7%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기본식단에 3가지 요리(시금치나물, 불고기, 건어무침)이 추가된 3첩반상은 RDA의 47.2% 에너지와 98.3%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들 식단은 현대의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균형 잡힌 식단이며 열량이 충분히 공급되면 무기질과 비타민도 충분하게 공급되는 균형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첩반상의 열량 구성비를 보면 기본식단과 3첩반상에서 탄수화물에 의한 열량 공급이 각각 77%와 64.4%로 높은 편이고, 지방 에너지는 각각 8.3%와 11.6%로 대단히 낮다. 잔치상에 해당

표 19. 한국 전통식단 첩반상의 영양가 분석(이철호, 류시생, 1988)

반상의 종류	기본식단	3첩반상	5첩반상	7첩반상
식단의 구성	밥, 국, 김치	기본식단 + 시금치 나물, 불고기, 건어	삼첩반상, 찌개 + 편육, 명란젓	5첩반상 + 굴전, 깍두기
총 열량 (kcal)	995 (40.0)	1,181 (47.2)	1,320 (52.8)	1,672 (66.8)
탄수화물(%)	77.0	64.4	60.1	53.4
단백질(%)	14.7	24.0	28.0	27.7
지방질(%)	8.3	11.6	11.9	18.9
총단백질(g)	36.5 (48.7)	70.7 (94.3)	92.5 (123.3)	115.5 (154.0)
동물성단백질(g)	28.7	59.5	69.0	72.3
Ca(mg)	161.1 (26.9)	216.3 (36.1)	255 (42.5)	596 (99.3)
Fe(mg)	12.1 (121.9)	23 (230)	26.8 (268)	40.3 (403)
Vit. A(I.U.)	426.6 (17.1)	8761.6 (350.5)	9129 (365.2)	9965 (398.6)
Vit. B1(mg)	0.62 (47.6)	0.86 (66.2)	1.08 (83.1)	2.16 (166.2)
(%)Vit. B2(mg)	1.92 (127.9)	3.03 (202.2)	3.44 (229.3)	4.35 (290.4)
Niacin(mg)	11.6 (68.3)	28.9 (169.9)	37.1 (218.2)	45.8 (269.4)
Vit. C(mg)	19.7 (35.9)	83.7 (152.2)	86.4 (157.2)	99.6 (181.2)

( ) 한국인 성인남자의 일일영양권장량의 백분율

하는 5첩반상에서도 지방에너지는 12%를 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전통 표준식단에서 볼 수 있는 식사목표(dietary goal)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일 2,000–2,500 kcal의 열량과 80–90 g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사로 그 에너지 구성비는 탄수화물에서 73–77%, 단백질에서 15–18%, 지방에서 10–12%를 얻으며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단백질의 20–30%을 섭취하는 것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철호, 권태완, 2003). 그러나 김호직의 7첩반상 구성은 양반가의 부유한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문헌상의 이상적인 식단으로 봐야하며, 일반인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단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인은 기본식단인 밥, 국, 김치만으로 매일의 식사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수탈에 의한 한국인 영양상태

1937년 7월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수탈에 혈안이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군량확보가 시급해지자 '조선증미계획'을 실시하여 미곡 증산계획을 재개했다. 아울러 식량의 소비규제를 위해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미곡공출제도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한국농민은 생산한 쌀을 일제 당국에 부락단위로 강제로 팔았고, 수입된 안남미나 잡곡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어가야 했다. 일제는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해 금속제 그릇을 강제로 공출하고, 농기구, 식기, 제기는 물론, 심지어 교회나 사원의 종까지도 징발하여 전쟁무기 제작에 이용했다.

1939년 일본인 히로가와(廣川)가 경성부 내에 거주하는 상류생활자 두 가정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일 섭취에너지는 2,363 kcal이고, 당질 339.5 g, 단백질 116.4 g, 지질 53.0 g으로 보고되고 있다. 에너지 구성비는 당질 59: 단백질 20: 지질 21로 계산되었다(이기열 등, 1998). 또한 이석신(1931)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 상류가정의 1인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635 kcal이고, 단백질은 102.7 g으로 조사되었다.

히로가와는 1939년 경성부내 월수입 100–150원 수준의 중류생활자 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인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441 kcal, 당질 432.7 g, 단백질 79.8 g, 지질 37.6 g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칼슘 섭취량이 낮았으며, 에너지 구성비는 73: 13: 14로 나타났다(이기열 등, 1998). 이석신(1930)은 중류층에 속하는 조선인 젊은 여성의 겨울철 영양소 섭취량을 에너지 2,110 kcal, 단백질 98.0 g, 지질 28.5 g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에너지 구성비는 68:19:13으로 나타났다.

히로가와는 두 소작농 가정의 아침 · 점심 · 저녁 삼식의 1인 분량에 대한 분석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3,334 kcal, 당질 692.6 g, 단백질 77.6 g, 지질 21.7 g으로 나타났다(이기열 등, 1998). 하층민의 에너지 섭취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계층별로 에너지의 주식 의존율은 하류층 95.4%, 중류층이 76.1%, 상류층이 56.7%로 계산되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생이 서울 부근의 토착민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 103호의 1호당 평균 월수입은 44원 61전이며, 이중 음식물비가 31원 71전으로 전 지출액의 73.3%를 차지했으며, 주택비가 81전, 피복비가 2원 41전, 광열비가 8원 24전으로 조사되었다(이기열 등, 1998). 1954년의 한국 농가의 엥겔지수 73.3과 동일하다(이철호 등, 1988). 광열비가 전체지출의 19%를 차지하는 것은 1906년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기술한 내용을 회상 시킨다(Hulbert, 1906; 이철호 2022).

한편 일제의 식량 배급제 실시 이전에는 보리 외에 콩, 조, 팥 등을 혼식하였으나, 배급제 실시 이후에는 개별적 차이는 없어지고 모두가 보리와 쌀만 먹었다. 배급제에서는 성인, 소아 할 것 없이 1일 1인당 쌀 1.5홉(270 cm^3)과 보리 1.5홉을 배급받았다. 그러나 이 양은 육체노동자에게는 크게 부족한 양이었으므로 거의 배에 가까운 보리를 더 구매하여 보충하였다. 배급쌀은 주로 수입쌀(안남미)이었으며, 보리는 활맥 또는 압맥이었다. 당시의 쌀 35%에 보리 65%의 비율로 지어진 밥의 외관은 순 보리밥과 같았고, 쌀은 안남미였으므로 끈기가 거의 없었다(이기열 등, 1998). 이상에 나타난 주식물 섭취량은 그들의 생활이 순조로울 때이고, 질병, 가뭄, 홍수, 춘궁기 등에는 식량이 모자라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걸식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건강 상태

구한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높은 영아 사망률과 전염병 만연으로 23세 내외였으나, 192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42년에는 44.9세(남자 42.8세, 여자 47.1세)에 이르렀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한국인의 사망률은 1910–'15년 인구 1,000명당 16.1에서 1926–'30년 21.6을 기록했으며, 영아사망률은 1910–'15년 49.2/48.4(남/여)에서 1938–'42년 105.7/91.4(남/여)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당시의 통계자료의 불확실성이나 미비에 기인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세에 사망할 확률은 1,000명당 1926–'30년 252.2/230.0(남/여)으로 대단히 높았으며, 1938–'42년에는 120.1/109.0(남/여)으로 감소하였다.

알레인 아일랜드(Alleyne Ireland)의 1923년 한국인의 사망률은 1,000명당 21명이었으며,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표 20과 같다(Ireland, 1926).

표 20에 언급된 원인별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89%에 해당한다. 이들 수치는 한국보건인구연구원이 발표한 1933부터 1942까지의 원인별 사망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보건인구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계 질환 사망자 수는 1933년 197,000명, 1938–'42년 247,000명, 신경계 장애 216,000–200,000명, 호흡기계 질환 146,000–213,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보건인구연구원, 1984) 이러한 차이 역시 자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1923년 한국인 사망자 원인별 통계 (Ireland, 1926)

사망 원인	사망자 수
신경계질환	72,086
소화기질환	53,320
호흡기질환	46,691
전염병	34,302
김기	33,022
노환	18,935
순환기질환	14,899
체질질환	10,789
정신이상	9,820
비뇨기질환	9,576
피부병	8,128
이비인후과질환	7,717

(자료) 조선총독부 행정연보 1922–23

아일랜드(Ireland, 1926)가 기록한 전염병에 관한 통계(1912–1923)를 보면 콜레라는 1916년, '19년과 '20년에 크게 발생했으며, 1916년에는 2,066명이 이환되어 1,253명이 죽었으며, 1919년에는 16,803명 발병에 10,009명 사망, 1920년에는 24,229명 발병에 13,568명이 사망했다. 이질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1–2천 명이 발생하며 300–500명이 사망했다. 장티푸스도 매년 10만 명당 1–3천 명이 발생하여 300–700명이 사망하였다. 천연두는 1919년 이후에 크게 발생했는데 1920년에는 11,532명이 발생해 3,614명이 사망했다. 성홍열 환자는 1914년부터 늘기 시작해 1933년에는 1,008명 이환에 242명이 사망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이질로 사망한 숫자는 인구 10만 명당 매년 683명, 장티푸스 1,208명, 천연두 365명, 발진티푸스 225명, 디프테리아 477명, 유행성 뇌척수막염 12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이기열 등, 1998).

김인달(1956)은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신장과 체중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한국인 성인의 평균 신장은 1913년의 남자 161.5 cm, 여자 147.5 cm에서 1940년 남자 166.1 cm, 여자 154.4 cm로 증가했다. 아동들의 평균키는 일본인보다 현저히 작았다. 한국인 성인의 평균 체중은 1913년 남자 55.5 kg, 여자 45.5 kg에서 1940년 남자 58.2 kg, 여자 52.1 kg으로 증가했다.

일본이 독점한 식품산업

식품산업 규모

1910년 한일합방에서부터 1945년 광복까지는 서구문명의 유입에 의한 서양음식의 부분적 소개와 인식이 태동한 시기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탈과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물자공출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점차 빠져 들어간 기간이었다. 이 시대는 서구식

영양이론이 소개되고 빵, 과자 문화가 이 나라에 유입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의 제빵 기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1920년대 초에 최초의 양과자점인 명치옥(明治屋)이 충무로에 서게 되며 1940년대 초에는 서울에 제빵업소 40여 개소, 제과점 140개소가 생기게 되었다(채예석, 1948).

1922년에 발간된 《조선식료품 동업발달지》(선만실업조사회, 1922)에 의하면 이때에 이미 일본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도정업(208개소), 제분업(8), 과자제조업(44), 한천제조업(3), 제면업(21), 양조업(172), 청량음료 제조업(6), 제빙업(2), 제염업(21), 통조림 제조업(19) 등 도합 504개의 식품 제조업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패턴이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제분, 제면, 과자제조, 청량음료, 통조림 등이 소규모이긴 하나 일부 층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이철호 등, 1988). 그러나 이들 산업화는 일본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한국인은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에 막혀 철저히 배제되었다.

표 21은 1929년부터 1938년까지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 변화이다(Grajdanzev, 1944), 이 표는 기업화된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수공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식품업체 수는 1929년 1,958개소에서 1938년 2,399개소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식품업 종사자수는 24,756 명에서 37,929 명으로 증가했다. 1935년의 가내수공업을 제외한 식품기업들의 생산액이 3,825만 달러인 것에 비해 주로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수공업 생산액이 4,645만 달러인 것을 보면 한국인이 경영한 소규모 식품업이 상당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2년의 《조선식료품 동업발달지》에서 파악한 일본인 식품제조업체수가 504개소라면 당시 한국인이 경영한 가내 수공업수는 (1958−504=1454) 1,000여 곳이 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는 1935년과 1937년의 식품산업 생산액과 생산량 통계이다(Grajdanzev, 1944). 전체적으로 당시 가공식품 생산액은 연간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매출액의 42%가 주류이다.

주류산업

일제는 1907년 통감부 주세령을 공포하여 가정마다 담그던 술을 불법화하고 주류제조 허가제를 시행했다. 1916년에는 주세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술을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하고, 약주의 침전물 재(滓)를 거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사케와 경쟁할 수 없는 저질의 술로 전락시켰다. 1917년 총독부는 주류제조면허를 정비하여 판매권 배정제를 실시하여 친일 도구화 하였다(이철호, 2021) 1933년 대일본맥주가 150만 엔을 투자하여 조선맥주를 설립했고, 기린맥주(Showa Kirin Beer)가 120만 엔을 투자하여 경성 근교에 맥주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로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소비층이었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된 약탁주를 애용했다. 일본식 청주인 사케 생산 공장은 130여 개가 있었으나 주로 일본인 상대였다. 소주도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았으나 점차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간장과 일본식 된장(미소)의 생산액이 비주류식품 생산액의 30%를 차지하였다.

제분산업과 기타 식품산업

밀가루 제분공장은 1919년 만주제분에 의해 진남포에 현대적인 롤 밀 방식의 제분공장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1921년 한국제분(Hokoku)이 두 번째로 경성에 설립했다. 그 후 1931년 풍국제분주식회사의 용산 공장, 1935

표 21. 한국의 식품산업 규모 변화(1929–1938)(Grajdanzev, 1944)

	1929	1933	1935	1937	1938
식품제조업소수	1,958	2,183	2,326	2,273	2,399
고용자수	24,756	32,293	34,957	34,999	37,929
가내 수공업을 제외한 생산액(1,000USD)	–	–	38,253	–	70,750
식품산업 총 생산액(1,000USD)	111,706	61,364	84,710	119,016	137,200

표 22. 주요 식품의 매출액과 생산량(1935, 1937)(Grajdanzev, 1944)

	생산액($1,000)		생산량	
	1935	1937	1935	1937
맥주 (hectolitres)	1,836	3,476	72,640	133,714
탁약주 (1,000 hectolitres)	15,994	24,921	3,534	4,123
일본 청주 (1,000 hectolitres)	3,528	5,653	174	262
소주 (1,000 hectolitres)	10,866	13,706	1,419	1,106
기타 주류 (1,000 hectolitres)	3,753	1,638	-	-
주류 합계	**35,978**	**49,395**		
간장 (1,000 hectolitres)	10,641	15,592	4,136	4,587
된장 (M/T)	4,250	5,363	79,940	132,044
밀가루 (M/T)	4,649	5,868	56,375	56,337
기타 곡분	1,112	997	-	-
청량음료	472	875	-	-
캔디	4,229	5,167	-	-
전분	1,174	2,109	-	-
설탕	4,261	5,273	-	-
통조림	1,376	2,232	-	-
소금 (M/T)	1,315	1,251	98.663	90,129
해조류, 건조가공품	1,433	2,156	-	-
빵 (M/T)	1,624	1,882	15,198	15,080
기타	12,194	20,855	-	-
Total	**84,710**	**119,016**		

년 일본제분주식회사(현 대한제분)의 인천공장과 제등제분주식회사(현 삼화제분)의 인천공장, 1936년 일청제분주식회사(현 대선제분)의 영등포공장이 차례로 설립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1944년에는 7개 제분회사가 가동 중이었으며, 제분 생산능력이 5,000 바렐 정도이나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밀가루를 일부 수입하였다(Grajdanzev, 1944).

청량음료 제조사는 약 10개소이며, 제과공장은 한국제과와 경성제과가 대표적이며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분제조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일본 미쓰비시사 계열의 일본곡산공업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생산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45,000톤 정도이나 대부분 수출하였다. 통조림 공장은 통조림용 어류가 잡히는 동해안에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국내 수요는 거의 없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였다.

제당산업

설탕공장은 세계전쟁 중에 조선제당주식회사(Chosen Seito Kaisha)가 사탕무우에서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해주(Heijo)에 생산능력 5만톤의 공장을 설립했으나 한국에서 사탕무우가 생산되지 않아 회사를 일본설탕공사에 매각하였다. 일본설탕공사는 원당을 수입하여 설탕을 생산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아이스케키 같은 저렴한 설탕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가정용 요리에도 설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표 23은 설탕의 수출입 통계자료이다(Grajdanzev, 1944). 설탕의 수출량은 중일전쟁(1937)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설탕 완제품이 일본에서 수입된 양도 있겠으나 점차 원당으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 평균치가 1,5 kg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의 설탕 소비는 극히 적은 양이고 주로 상류층이나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을 포함한 외

표 23. 한국의 설탕 수출입 통계와 1인당 소비량 변화(Grajdanzev, 1944)

	1929	1936	1937	1938	1939
수출(1000톤)	30.0	33.0	32.5	22.1	12.5
수입(1000톤)	52.8	66.4	66.5	55.5	57.4
순수입(1000톤)	22.8	33.4	34.0	33.4	45.4
1인당 연간 소비량(kg)	1.17	1.50	1.52	1.48	1.90
일본인 소비량(kg)	12.1	14.7	14.0	–	–
미국인 소비량(kg)	48.7	46.3	41.8	43.7	48.8

국인들이 소비하였다고 본다.

수산물 가공산업

일제 강점기의 수산물 가공산업은 1918년 1,910만 엔에 불과하던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이 1938년에는 5배가 넘는 9,680만 엔($4,840만)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주로 정어리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어리 어획량은 1932년 275,900톤(전체 어획량의 23%)에서 '37년에는 1,388,200톤(전체 어획량의 65.5%)으로 증가했다(Grajdanzev, 1944). 정어리는 기름을 짜서 정어리유와 착유박(비료)으로 나뉘는데 정어리유는 글리세린, 지방산, 화약, 의료용품 등 군수용품 생산에 사용된다. 1938년에 어획된 정어리의 91%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정어리 어획량은 1938년 갑자기 감소하는데, 많은 한국인 어부들이 일본 어선들이 고기를 쌍끌이 어업으로 남획하는 통에 생선의 씨가 마른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표 24는 1938년의 수산물 가공 통계이다(Grajdanzev, 1944). 건어품, 염장건어품, 자숙건어품(주로 멸치), 염장품, 통조림, 자반류, 해조류 등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어유와 비료로 사용되는 어유박이 포함된다.

유가공산업

명치유신 이후 우유소비를 본격화한 일본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우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1911년 5월 '우유영업취제규칙'을 마련하였다. 서울역과 청량리 인근에 목장을 조성한 일제는 이후 충남 성환, 강원도 평원, 화양군 난곡 등 전국적으로 목장을 확대하였

표 24. 1938년 수산물 가공품 생산 통계(Grajdanzev, 1944)

	생산량(M/T)	생산액($1,000)
건어품	34,800	6,416
염건어품	7,300	889
자숙건어품(멸치)	15,600	3,372
염장어류	42,500	3,200
통조림(1,000 상자)	2019a	2,089
자반류(Salty fish)	12,900	1,608
해조류 (김, 미역 등)	10,200	3,457
기타 수산가공품	12,600	1,297
식품 소계	**135,900**	**22,330**
농업용 비료	198,900	14,463
산업용 어유	116,000	10,989
기타제품	2,500	626
수산가공품 합계	**453,300**	**48,409**

a: 합산에 포함되지 않음. (주) 원본 1yen= 0.5USD 당시환율

다. 젓소 사육기반이 마련되면서 1934년 청량리농유조합이 최초로 출범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 15명이 합작해 설립된 청량리농유조합은 젓소에서 짠 우유를 가마솥에 끓여 냉각한 뒤 병에 담아 배달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우유 판매를 금지한 일제의 방침으로 조합은 해산되었다. 대신 일제는 자국에서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서구식 유가공설비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우유공장을 조선에 세웠다. 1938년 7월 경성우유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독점판매를 했으며, 1945년 9월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우리나라 우유공업의 모태가 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주권을 잃은 국민의 고통

일제는 식량과 물자, 경제 수탈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체제를 갖추어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전선이 확대되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 일본을 위해 싸우게 했다. 처음에는 군대보충을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도(1938년)를 실시하다가 이를 징병제도(1943년)로 바꾸어 패전할 때까지 약 20만 명의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지원병제도(1943)를 실시하여 약 4,500명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이남택, 2005).

이 밖에도 일제는 전시노동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령이 실시되면서 1백만 명 이상의 한국 청장년들이 전시노동자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들은 광산 및 비행장, 군수공장, 철도 등의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으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무더기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을 근로동원이라 하여 군사시설 공사와 토목공사에 동원하였으며, 여성들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군 위안부 제도는 1931년 9월 만주침략 이후 일본군의 중국인에 대한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의 반일의식이 높아지고 군대 내에 성병이 만연하여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도입되었다. 특히 1937년 난징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은 군 전속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 위안부는 식민통치 하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점령지였던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여공, 식당종업원 모집 등을 구실로 하는 인신매매수법을 이용하였으나, 1941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뒤에서 관여하여 면장의 책임 하에 군부대 잡역, 간호보조, 군수공장 여공, 특수근속 근무로 속여 동원하였다. 1938년까지 일본군이 군 위안소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는 형식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겼다. 위안부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탈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감시받았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패주하면서 일부 일본인 위안부에게만 패주 사실을 알리고 다른 위안부에게는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상당수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이남택, 2005). 일제 패망 이후 위안부는 미군정 당국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귀환하였는데, 상당수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귀국하지 않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References

Bergman S.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John Gifford Ltd., London. pp.49 (1938)

Grajdanzev AI. Modern Korea, H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USA. The Haddon Craftsmen Inc. (1944)

Ireland ET. The New Korea, Dutton & Company, New York. pp. 25, 242 (1926)

Hulbert HB.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 Company. New York (1906)

Keith E. and Scott EKR.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 Philosophical Library, New York. pp.7, 14 (1947)

Kim J, Representing the Invisible: The American Perceptions of Colonial Korea, 1910-1945. Ph.D. Thesis. Columbia University (2011)

Roosevelt T. The Japanese in Korea, in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The Metropolitan Magazine Company (1915), pp.293-304 (1916)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riving Chosen, A Survey of Twenty-five Year's Administration. Seoul. pp.41 (1935)

김인달. 한국인의 체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 3: 75-133 (1956)

김호직. 조선식물개론, 생활과학사. (1944)

선만실업조사회. 조선식료품발달지 (1922)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서울, pp.28 (1998)

이남택 외 10인,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장병 정신교육 발전 연구위

원회, 도서출판 황금알 (2005)
이석신. 동계에 있어서 조선인의 영양소 및 에너지의 섭취량, 조선화학회지, 1. (1930)
이석신. 조선인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조선의 농촌위생 (1931)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pp.289 (2021)
이철호, 구한말 사회변혁과 식량사정, 식품과학과산업, 55(2), 203-217 (2022)
이철호, 권태완. 한국식품학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pp. 125, 141 (2003)
이철호, 류시생. 한국 전통식단의 영양가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75-280 (1988)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채예석.「경성을 중심으로 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조사 보고」, 국립화학연구소 보고, 1:65 (1948)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의 사망수준 및 인구 이동추세 (1984)